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11:13-21, 찬송 212장

1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겸손함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2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13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4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15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16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17 그런데 참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18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대더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9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20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오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3 본문 설명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시기를 일으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자랑할 때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4 삶의 나눔

5 함께하는 기도

7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본문 요약

One-Point 묵상

1 묵상구절

절

2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

3 오늘의 삶

4 적용

5 기도